

그리움의 꽃다발

리 은 주

별많은 밤이다.

별들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밝은 빛을 뿌리고 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불밝은 거리를 바라보고있다. 가로등이 밝은 빛을 뿌리는 거리로는 하루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흐르고있다.

집집의 창문마다엔 행복의 불빛이 넘쳐흐른다.

불밝은 거리를 바라보는 나의 귀전에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선경의 새 집 들려도 인민들 좋아하는가

사랑의 공원 찾아도 인민들 기뻐하는가

...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를 듣노라니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온 내가 옷방에 올라가 오늘 배운 파목들에 대한 복습을 하고있었는데 소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누나.》하고 부르며 달려들어왔다.

그리고는 내앞에 향기로운 생화묶음을 내놓았다.

《야, 꽃이 정말 곱구나. 어디서 가져왔니?》

《온실에서 가져왔어. 래일이 광명성절이 아니나.》

동생은 웃음이 찰랑거리는 얼굴로 빠기듯이 나에게 말했다.

아직은 철부지라고만 생각했던 동생이 언제 이렇게 다 자랐는가 하는 생각에 나는 동생의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우리 영남이 정말 용쿠나.》

동생은 어깨를 으쓱하며 재롱스럽게 말했다.

《누난 내가 아직 유치원생인줄 아니?!》

《그래, 우리 영남이 이젠 당당한 소학교 학생이지.》

동생은 한결 정숙해진 어조로 이야기했다.

《누나, 우리 학급동무들모두가 약속했어. 꽃다발을 곱게 엮어서 래일 아침 우리 장군님의 태양상에 드리자고 말이야.》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곱이 뜨거워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피눈물의 그해에 강보에 싸여있던 동생이 아니던가.

탁아소와 유치원시절을 거쳐 우리 말과 글, 우리 노래와 춤을 배우며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어린 가슴에 깊이 새겼기에 오늘은 저토록 대견하고 툼툼하게 보이는것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불러주시며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사랑의 선물들도 안겨주시고 새 교복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

우리들이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야영길에 오를 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높고 험한 오성산과 철령의 칼벼랑길을 오르시며 우리들의 요람을 지켜 쉬임없이 전선길을 이어가신것 아니랴.

우리는 조국의 미래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고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고 하시며 멀고 험한 전선길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하기에 태어나면 애기궁전에서, 자라나면 소년궁전에서 마음껏 희망을 펼쳐가도록 세상에 부럽없이 우릴 안아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한품속에서 나의 동생도 때일찍 철이 든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이 세상 온갖 행복을 마음껏 누리갈수록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어린 가슴에도 사무쳐와 내 동생도 그 작은 손으로 정성담아 꽃다발을 엮는것이리라.

그렇다, 아직은 비록 철없는 나이여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송이송이 엮어가는 꽃다발,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강성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그리움의 꽃다발, 아버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로 튼튼히 준비해갈 드림없는 신념과 맹세의 꽃다발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젖어있는 나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며 방송에서는 절절한 노래의 구절들이 울려나왔다.

인민의 락원 가꾸려 주체의 해빛되셨네

인민의 운명 지키려 선군의 보검되셨네

...

(회천시 청상고급중학교 학생)